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이 상 준¹⁾

경일대학교 복지서비스학부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완화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경산지역 대학생 578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조절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부모지지, 친구지지는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부모지지는 취업스트레스와 조절함으로써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충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부모지지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가족관련 교양교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주요어 : 취업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1) 경일대학교 복지서비스학부 사회복지학과, 교수 (E-mail: sharelove2@naver.com)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 시기는 후기청소년기로써 자아정체감을 확고히 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삶의 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정형화된 이전의 공교육과는 달리 본인이 선택한 학교와 학과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역할 수행과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최예숙, 2013). 또한,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벗어나자마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서 교우관계와 생활양식의 변화, 자기관리, 취업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Haines, Noris, & Kashy, 1996), 이는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서 성적 저하나 자신감 감소 등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Magnusen & Amundson, 2003).

최근 대학생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해 심각한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에서 2018년 2.9%, 2019년 2.2%, 2020년 -0.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한국은행, 2021),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고용과 소득에도 자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청년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OECD에서 1위이지만, 한국의 청년 대졸자 실업률 순위는 2009년 14위에서 2019년 28위로 14계단 떨어졌다. 이는 OECD 평균 청년 대졸자 실업률이 6.1%에서 5.3%로 하락

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5.0%에서 5.7%로 0.7% 포인트 악화됐기 때문이다(조세일보, 2020).

또한 2020년 우리나라 20~29세 청년실업률은 9.0%로 전체 실업률 4.0%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통계청, 2021), 취업준비생들의 93.8%가 취업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리크루트 타임스, 2019), 58.4%는 2020년 하반기에 취업할 자신이 없다고 함으로써(리크루트 타임스, 2020) 대학생들이 겪는 취업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취업시장의 분위기가 경직되고 높은 청년실업률이 지속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취업은 가장 큰 고민이자 가장 큰 스트레스로서 대학생활의 적응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적응이란 일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과 도전 그리고 부담이 되는 요구들을 관리하면서 대처해 나가는 심리적 조정과정이다(Bukhari & Ejaz, 2020). 인간은 삶의 여러 상황과 과정에서 적응적으로 곤란한 외부·환경적 자극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는 개인은 심리적, 신체적 긴장을 경험하게 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이상준, 2019). 대학생활적응은 개인·정서적 적응과,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환경적 적응으로 구분되는데(박희석, 2010), 즉 대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의 심리적인 적응, 학업에서의 적응, 친구나 선배, 교수들과의 대인관계, 대학이라는 구조적, 물리적 적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취업스트레스는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들의 삶의 질을 낮추고 불안과 우울 등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살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한다(김은희, 최진호, 2018; 문덕희, 2019; 정용, 구훈정, 2019). 그리고 이러한 취업스트레스는 불안,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문제와 함께 대학생활적응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가영, 최태월, 이용선, 2015; 한동협, 김희순, 장성화, 2018).

국외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Arnout, 2020; Mæhlisen et al., 2018),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청년의 대학교육 이수율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고학력인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문제는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일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고경필, 심미영, 2015; 박신희, 민형덕, 고현, 2020; 백은주, 조규판, 2017; 서정희, 2012; 서준보, 이정미, 이우호, 2019; 이가영 등, 2015). 무엇보다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대학생활에서의 적응은 향후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에서 적응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대학생들에 대해 이들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적응적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단순히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초점을 두거나(이가영 등, 2015; 서정희, 2012), 또는 취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가족지지, 회복탄력성, 사회적 지지, 대처전략,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고경필, 심미영, 2015; 박신희, 민형덕, 고현, 2020; 백은주, 조규판, 2017; 서준보 등, 2019)들로 이루어져 있다. 일부 논문에서 자기격려(이현주, 2014)와 회복탄력성(방한승, 최우성, 나상문, 조형규, 2017)의 변수를 통해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있기는 하지만 조절효과 연구가 극히 소수로 제한되어 있어 더 다양한 조절변인을 고려한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이 조절효과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이유는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는다는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자아정체감이란 자신이 타인과 구별될 수 있는 독자성, 일관성 내지는 동일성인 동시에 또한 과거-현재-미래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되며(Mussen, Conger, & Kagan, 1974), 개인의 정체성, 온전성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환되는 환경 속에서 적응과 재교육의 결과를 통해 발달하고 진화하는 특유의 구조들이 결합된 개인적 특징이다(Flotskaya, Bulanova, Ponomareva, Flotskiy, & Konopleva, 2019). 자아정체감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 적응, 대인관계, 성 역할, 직업

태도, 인지, 도덕성 발달에 문제가 발생하고 정서불안과 공포증 같은 정신병리 현상까지도 초래하게 되며, 개인의 심리적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Erikson, 1968; 박진희, 이상희, 2013에서 재인용). 이러한 자아정체감은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도, 사회적 관계, 자기수용, 환경통제력,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문제들, 우울, 불안, 정신신체적 증상 등 다양한 적응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bu-Rayya, Abu-Rayya, White, & Walker, 2018). 또한 자아정체감은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다혜, 2017; 어용숙, 이경리, 최송실, 2011; 장현정, 이윤정, 2019; Markowitz, 2014), 자아정체감은 우울과 불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수영, 김순규, 2019).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승인, 확신, 가치의 정도로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의 중요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Alimohammadi, Samani, Khanjari, & Haghani, 2019; Asakereh & Yousofi, 2018).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일상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는 방식, 선택하는 방식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삶에 대한 주도권과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선택과 행동에 자유를 누리며 창조적인 사고를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정성희, 박수정, 장현숙, 2016). 또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발달과 자

아실현에 중요한 요소로서 인간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신성철, 최성열, 2019).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이민희, 2019; Aspelmeier, Love, McGill, Elliott, & Pierce, 2012; Smith, 2007).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지언과 정익중, 장유다, 주영하의 연구(2015)와 신성철과 최성열의 연구(2019)에서는 각각 휴대폰 의존과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전문가나 중요한 타인 및 주변 지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긍정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이 감소하고,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개선되는 등 다양한 심리적, 환경적 적응 상황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희영, 정봉교, 2016; 손보영, 윤수란, 2018; 송현심, 성승현, 2015). 이러한 사회적 지지 즉, 부모와 친구, 교수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그동안 대학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김유경, 2015; 전원희, 조명주, 나현주, 2015; 조보람, 이정미, 2019; Rahat & Ilhan, 2016). 또한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위기 시에 적응을 촉진시키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완충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Cobb, 1976), 스마트폰 과의존(이순례, 김형수, 2017)과 불안정

성인애착(전연지, 2018), 성격유형(Lidy & Kahn, 2006)을 친구관계가 조절하여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리고 국외연구에서도 부모지지는 애착지향적 친구관계와 조절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spinoza, Gillen-O'Neel, Gonzales, & Fuligni, 2014).

또한 대학생은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지고(백선주, 2018), 학년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다는 연구(정원철, 김진영, 2015)와 대학생활적응은 학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김다혜, 2017; 박효진, 변은경, 양현주, 2019; 변은경, 안은선, 2019)을 바탕으로 학년을 통제변수로 투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를 본 연구의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경산권역의 4년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추출은 7개 대학 중 단순무작위표집으로 3개 대학을 추출하였고, 각 대학 당 200명씩 총 600명을 조사하였다. 직접적인 자료수집은 무작위표집이 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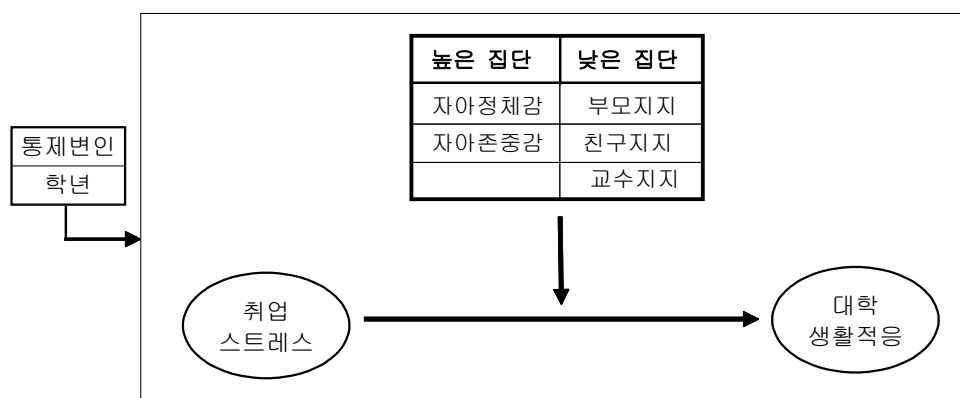


그림 1. 취업스트레스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조절효과 연구모형

어렵기 때문에 연구자에 의해 훈련된 유급 면접생들이 각 대학의 캠퍼스에서 임의표집방식으로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설문조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에서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57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총 578명의 대학생 중 남학생은 57.3%(331명), 여학생은 42.7%(247명)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22.1%(128명), 2학년 32.0%(185명), 3학년 26.6%(154명), 4학년 19.2%(111명)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 52.1%(301명), 자연계열 47.9%(277명)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취업스트레스

코넬 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rnell Medical Index: CMI)을 토대로 개발된 황성원(1998: 강유리, 2006에서 재인용)의 취업 스트레스 설문지를 강유리(2006)가 다시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격스트레스 6, 가족환경스트레스 5, 학업스트레스 4, 학교환경스트레스 4, 취업불안스트레스 3문항,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를 들면, 성격스트레스는 “나는 요즘 취업문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게 된다”, 가족환경스트레스는 “나의 대학공부 때문에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내가 취업하여 해결해야 한다”, 학업스트레스는 “나는 취업공부로 학점이 좋지 않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등이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성격스트레스 .90, 가족환경스트레스 .90, 학업스트레스 .88, 취업관련 학교환경스트레스 .84, 취업불안스트레스 .86, 전체적으로는 .91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Baker와 Siryk(1984: 박희석, 2010에서 재인용)가 제작한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도구를 박희석(2010)이 타당성을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개인·정서적 적응 10, 학업적 적응 6, 사회적 적응 6, 대학환경적 적응 4문항,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고,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개인·정서적 적응 .86, 학업적 적응 .83, 사회적 적응 .85, 대학환경적 적응 .85, 전체적으로는 .89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은 박아청(1996: 정종권, 1998에서 재인용)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중 정종권(1998)이 부정적인 하위영역 2개(‘자아정체감 유예’와 ‘자아정체감 혼미’)를 제외하고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의 6개 영역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한 24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를 들면, 주체성은 “나는 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자기수용성은 “우리 집안에서 나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미래확신성은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등이

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genberg(1965: 이영자, 1994에서 재인용)가 개발한 Self Esteem Scale을 전병제(1974: 이영자, 1994에서 재인용)가 번안한 도구를 이영자의 연구(1994)에서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문항과 부정적 문항이 각각 5문항인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Nolten(1994: 장성화, 진석연, 2009에서 재인용)의 Student Social Support Scale을 수정한 이미지라(2001: 장성화, 진석연, 2009에서 재인용)의 것을 장성화와 진석연(2009)이 재수정하고, 이를 이순례와 김형수(2017)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인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수지지별로 각 9문항씩 전체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지지와 친구지지, 교수지지의 인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부모지지 .92, 친구지지 .90, 교수지지 .8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와 AMOS 25.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취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의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넷째,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에서 Pairwise Parameter Comparisons(쌍집단 모수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Pairwise Parameter Comparisons 조절효과 분석은 조절변수의 각 집단에서 나타난 영향력의 차이를 임계치(CR)를 통해 검증하는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의 조절효과는 Pairwise Parameter Comparisons 분석에 대한 참고서적 및 선행연구들(김계수, 2013; 이상준, 2016, 2017; Kim, Preis, & Lee, 2019; Mackenzie & Shahidi, 2020; Spreng, 1992; Yeh, Wang, Hsu, & Swanson, 2018)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선행연구들의 모형에 따른 Pairwise Parameter Comparisons 분석은 조절변수를 평균을 중심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SPSS의 조절효과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각 집단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구체적인 회귀계수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각 집단의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수의 상관관계와 정규성

표 1은 측정변수의 상관관계와 평균값을 분

표 1. 측정변수의 상관관계와 기초통계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1.00													
2	.74***	1.00												
3	.59***	.70***	1.00											
4	.63***	-.45***	-.39***	1.00										
5	.51***	.57***	.45***	.45***	1.00									
6	-.42***	-.50***	-.47***	-.47***	-.53***	1.00								
7	-.51***	-.42***	-.42***	-.44***	-.44***	.45***	1.00							
8	-.40***	-.58***	-.47***	-.43***	-.55***	.39***	.48***	1.00						
9	-.39***	-.40***	-.41***	-.38***	-.43***	.44***	.21***	.31***	1.00					
10	-.54***	-.58***	-.47***	-.43***	-.55***	.43***	.55***	.39***	.48***	1.00				
11	-.42***	-.20***	-.17***	-.22***	-.20***	.50***	.52***	.48***	.46***	.62***	1.00			
12	-.20***	-.42***	-.19***	-.20***	-.21***	.28***	.29***	.27***	.22***	.43***	.23***	1.00		
13	-.18***	-.28***	-.17***	-.13**	-.23***	.43***	.32***	.42***	.37***	.46***	.26***	.51***	1.00	
14	-.21***	-.18***	-.21***	-.20***	-.17***	.09*	.08	.10*	.06	.27***	.18***	.23***	.20***	1.00
<i>M</i>	2.74	2.28	2.43	2.65	2.71	2.40	2.61	2.59	2.78	2.88	2.73	3.31	3.33	2.70
<i>SD</i>	0.66	0.67	0.64	0.74	0.69	0.63	0.64	0.70	0.62	0.45	0.43	0.63	0.56	0.57
왜도	-.30	-.08	-.28	-.29	-.13	.14	-.05	.24	.01	.04	.19	.32	.25	.17
첨도	.13	.36	.30	.54	.25	.28	.11	.40	.17	.28	.55	.21	.37	.36

주. 1 = 성격스트레스, 2 = 가족환경스트레스, 3 = 학업스트레스, 4 = 학교환경스트레스, 5 = 취업불안스트레스, 6 = 개인정서적응, 7 = 학업적 적응, 8 = 사회적 적응, 9 = 대학환경적 적응, 10 = 자아정체감, 11 = 자아존중감, 12 = 부모지지, 13 = 친구지지, 14 = 교수지지

* $p < .05$. ** $p < .01$. *** $p < .001$.

석한 결과이며,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여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정규성의 분석결과, 왜도와 첨도가 모두 2와 7 미만으로 나타나 측정변수의 정상분포 가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ney & Distefano, 2013).

2.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취업스트레스와 조절

변인의 영향력

표 2는 조절효과 분석에 앞서, 취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영향력을 각각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적합도에서 χ^2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

표 2.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취업스트레스와 조절변인의 영향력

변 수		회귀계수			모형 적합도			
		<i>B</i>	β	<i>t</i>	χ^2	TLI	CFI	RMSEA
독립 변인	학년(통제) 취업스트레스	-.02 -.49	-.05 -.45	-1.27 -8.51***	160.67	.932	.950	.042
조절 변인	자아정체감	.21	.39	5.93***	36.10	.996	.997	.056
	자아존중감	.26	.42	6.48***				
	부모지지	.22	.34	4.38***				
	친구지지	.22	.35	4.85***				
	교수지지	.07	.05	1.11				

*** $p < .001$.

감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최근에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추세이며, RMSEA는 표본크기가 큰 제안모형을 기각시키는 χ^2 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도 지수로서 0.10 이하이면 자료를 잘 적합시키고, 0.05 이하이면 매우 잘 적합시키고, 0.01 이하이면 가장 좋은 적합도라고 할 수 있고, TLI와 CFI는 0.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배병렬, 2005).

먼저, 취업스트레스 모형의 적합도 평가에서 사례수에 민감한 χ^2 검증을 제외하고 TLI .932, CFI .950, RMSEA .042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모형이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모형에서는 TLI .966, CFI .997, RMSEA .056으로 모두 양호하게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5(β) 만큼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모형에서는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부모지지, 친구지지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42(β)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아정체감이 .39(β), 친구지지 .35(β), 부모지지 .34(β)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친구지지와 부모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취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조절효과

표 3은 위 분석에서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

표 3. 조절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578)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수지지	
M	SD	M	SD	M	SD	M	SD	M	SD
2.88	0.45	2.73	0.43	3.31	0.63	3.33	0.56	2.70	0.57

표 4. 측정동일성 검증

변인	모형	χ^2	df	$\Delta\chi^2$	Δdf
자아정체감	동일성 제약모형	210.370	70		
	기저모형	197.295	66	13.075	4
자아존중감	동일성 제약모형	190.875	56		
	기저모형	177.589	52	13.286	4
부모지지	동일성 제약모형	203.975	70		
	기저모형	191.113	66	12.862	4
친구지지	동일성 제약모형	202.726	70		
	기저모형	190.476	66	12.250	4
교수지지	동일성 제약모형	222.377	70		
	기저모형	209.647	66	12.730	4

이다. 분석결과, 자아정체감은 평균 2.88점, 자아존중감은 2.73점, 부모지지 3.31점, 친구지지 3.33, 교수지지 2.70으로 나타났다. 표 4는 각 조절변인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먼저 자아정체감에서는 동일성 제약모형의 χ^2 값이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의 χ^2 값 보다 13.075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서는 동일성 제약모형의 χ^2 값이 1기저모형의 χ^2 값 보다 13.286 높게 나타났다. 부모지지에서는 동일성 제약모형의 χ^2 값이 기저모형의 χ^2 값 보다 12.862 높게 나타났다. 친구지지에서는 동일성 제약모형의 χ^2 값이 기저모형의 χ^2 값 보다 12.250 높게 나타났다. 교수지지에서는 동일성 제약모형의 χ^2 값이 기

저모형의 χ^2 값 보다 12.730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조절변인에서 동일성 제약모형이 기저모형보다 자유도가 4개 많음에도 불구하고 χ^2 값 차이가 자유도 4의 χ^2 값인 15.36 보다 작게 나타나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1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모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5는 표 3에서 제시된 각 조절변인의 평균을 기준으로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각 변수의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에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Pairwise

표 5.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변 수	회귀계수			CR	모형 적합도			
	B	β	t		$\chi^2(p)$	TLI	CFI	RMSEA
자아정체감 낮은 집단	-.55	-.41	-8.74***	-3.23**	.000	.926	.948	.040
자아정체감 높은 집단	-.31	-.27	-4.42***					
자아존중감 낮은 집단	-.58	-.46	-9.67***	-4.20***	.000	.926	.950	.042
자아존중감 높은 집단	-.30	-.25	-4.75***					
부모지지 낮은 집단	-.55	-.40	-7.58***	-2.12*	.000	.926	.948	.044
부모지지 높은 집단	-.34	-.28	-4.23**					
친구지지 낮은 집단	-.51	-.36	-6.68***	-1.18	.000	.921	.942	.043
친구지지 높은 집단	-.36	-.31	-5.31***					
교수지지 낮은 집단	-.50	-.37	-6.67***	-1.01	.000	.928	.950	.043
교수지지 높은 집단	-.42	-.33	-5.43***					

주. 통제변인: 학년, 독립변인: 취업스트레스, 종속변인: 대학생활적응

* $p < .05$. ** $p < .01$. *** $p < .001$.

Parameter Comparisons를 통해 조절효과를 분석하였으며, 통계적인 유의미도는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는 임계치(CR)를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에서 TLI .926, CFI .948, RMSEA .040으로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본 모형은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아정체감의 각 집단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정체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41(β)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정체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27(β)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정체감이 낮은 집단($\beta =$

-.41)이 높은 집단($\beta = -.27$)에 비해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집단 간의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R = -3.23, p < .001$).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에서 TLI .926, CFI .950, RMSEA .042로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본 모형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각 집단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의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46(β)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의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25(β)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beta = -.46$)이 높은 집단($\beta = -.25$)에 비해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집단 간의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R = -4.20, p < .001$).

다음으로 부모지지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에서 TLI .926, CFI .948, RMSEA .044로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본 모형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지지의 각 집단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지지가 낮은 집단의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40(β)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지지가 높은 집단의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28(β)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지지가 낮은 집단($\beta = -.40$)이 높은 집단($\beta = -.28$)에 비해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집단 간의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R = -2.12, p < .05$).

다음으로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에서 TLI .921, CFI .942, RMSEA .043으로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본 모형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친구지지의 각 집단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친구지지가 낮은 집단의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36(β)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구지지가 높은 집

단의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31(β)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R = -1.18, p = -1.18$).

끝으로 교수지지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에서 TLI .928, CFI .950, RMSEA .043으로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본 모형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수지지의 각 집단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교수지지가 낮은 집단의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37(β)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수지지가 높은 집단의 경우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33(β)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R = -1.01, p = -1.02$).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경산지역 3개 4년제 대학에서 대학생 578명의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조절효과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취업스트레스는 대학생 생활적응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부모지지, 친구지지는 대학생 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부모지지는 취업스트레스와 대학생 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 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 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 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이가영 등의 연구(2015)와 서정희의 연구결과(2012)와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자아정체감이 대학생 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어용숙 등의 연구(2011)와 김다혜(2017), 장현정과 이윤정(2019), Markowitz(2014)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대학생 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민희의 연구(2019)와, Smith(2007), Aspelmeier 등(201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부모지지가 대학생 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김지현의 연구(2012)와 김유경(2015), 강문선과 곽현석(2017)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친구지지가 대학생 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김태형의 연구(2016)와 송진열(2017), 문성연과 이봉근(2018), Rahat와 Ilhan(2016)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대학생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자

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부모지지, 친구지지의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이들 변인들의 대학생 생활적응에 대한 독립적인 보상효과가 분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교수지지는 근소한 차이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수지지가 대학생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이순례, 김형수, 2017; 임광명, 박덕병, 2020; 최윤하, 최민정, 2018)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최근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의 대학생 생활적응을 위해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와는 달리 조사대상인 대학들이 지도교수를 분담하고는 있지만 학생과의 상담을 의무화하지 않거나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과 교수간의 상호작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교수지지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조절효과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와 동일한 모형의 연구를 찾아본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먼저, 자아정체감이 대학생 생활적응에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독립변수에 차이가 있지만 박수영과 김순규의 연구(2019)에서 우울·불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아정체감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 조절효과는 이지연 등의 연구(2015)에서 휴대폰 의존이, 신성철과 최성열의 연구(2019)에서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부모지지 조절효과는 강문선과 박현석의 연구(2017)에서 성별이, 이순례와 김형수의 연구(2017)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이 대학생활적응과, 하도연과 김선희의 연구(2018)에서 학업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Espinoza 등의 연구(2014)에서 애착지향적 친구관계가 교육적 열망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지지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취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조절효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조절효과 연구가 자기격려(이현주, 2014)와 회복탄력성(방한승 등, 2017)이 조절효과가 있다는 두 연구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부모지지가 취업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킨다는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고 하겠다. 이는 일반적인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의 보상효과를 확인하는 것 보다는 더 진전된 방식이라는데 의미가 있다(이상준, 2016).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부모지지는 주효과 모델에서 취업스트레스와는 관계없이 대학생활적응을 높이는 역할만을 한다. 이는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부모지지 수준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취업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이 커질수록 대학생활적응이 어려워지는 것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부모지지의 완화효과

는 취업스트레스가 심해진다 하더라도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부모지지의 수준이 높아진다면,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둘째,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과업이다. 그래야만 이후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선택에서 혼돈을 겪지 않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선택과 실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취업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 확인된 것은 자아정체감이 후기청소년기인 대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이들의 자아정체감을 입학 시기부터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낮은 자아정체감을 나타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아동기부터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서,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내적 자원이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취업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 확인된 것은 자아정체감이 후기청소년기인 대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학생이 취업스트레스가 높으면, 대학생활에 적응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은 이들이 매우

어려운 경쟁적인 취업 환경에 처해있는 상황과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을 감안할 때 대학 내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시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 시기는 독립기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대부분 부모와 함께 살며, 부모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기로서, 부모지지는 대학생의 학업에 대한 적응을 높여주고, 사회적 적응과 대학환경적응에 도움을 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유경, 2015).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높은 수준의 사랑과 정서적 지지는 이들이 대학생활에서 겪는 취업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대학교육을 통해 대학생들로 하여금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가족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하여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끝으로 이러한 결과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대구·경산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추후의 연구에서는 조사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조절변인으로 세 가지 변인을 설정하였음에도 다양한 여러 변인들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제한되어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다양한 변인들을 폭넓게 설정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문선, 곽현석 (2017).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4), 663-671.
<https://doi.org/10.14257/AJMAHS.2017.04.60>
- 강유리 (2006). 무용전공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경필, 심미영 (2015).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6), 379-391.
<https://doi.org/10.5392/JKCA.2015.15.06.379>
- 김계수 (2013). AMOS 18.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김다혜 (2017).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영적안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경 (2015). 대학생의 자기불일치, 자기통제 및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희, 최진호 (2018). 대학생의 학업 및 취업스트레스가 외국인 혐오에 미치는 영향 - 불안의 매개효과 -. *청소년시설환경*, 16(1), 35-44.
- 김지현 (2012).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

-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형 (2016). 성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가 대
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광주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영, 정봉교 (2016).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
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와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정서·행
동장애연구, 32(4), 183-204.
- 리쿠르트 타임스 (2019. 10. 18). 취업생 93.8%
취업스트레스 겪고 있어...
<https://blog.naver.com/recruittimes/21681304112>
에서 2021년 5월 22일 인출
- 리쿠르트 타임스 (2020. 6. 24). 취업생 58.4%
“올 하반기 취업할 자신 없다!”
<https://blog.naver.com/recruittimes/22010597915>
에서 2021년 5월 22일 인출
- 문덕희 (2019). 졸업예정 간호대학생의 취업준
비도와 취업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
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4),
783-797.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14.783>
- 문성연, 이봉근 (2018). 체육계열 대학생의 회
복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가
족·친구·교수의 사회적 지지 매개효과.
한국스포츠학회지, 16(4), 461- 473.
- 박수영, 김순규 (2019). 중국 연변지역 내 해
외취업가정 청소년의 우울·불안과 학교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정체감의 조절효과.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5),
689-697.
<https://doi.org/10.21742/AJMAHS.2019.05.63>
- 박신희, 민형덕, 고 현 (2020). 대학생이 인식
한 학업 및 취업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719-744.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8.719>
- 박진희, 이상희 (2013).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지위와 자아정체감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
적 성숙의 차이. 상담학연구, 14(2), 1015-
1032.
<https://doi.org/10.15703/kjc.14.2.201304.1015>
- 박효진, 변은경, 양현주 (2019). 대학생의 자아
존중감, 극복력, 대인관계유능성이 대학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9(12), 627-636.
<https://doi.org/10.35873/ajmahs.2019.9.12.056>
- 박희석 (2010). 대학생활 적응척도의 요인구조
분석 - 관광관련 전공 학생을 중심으로. 관
광경영연구, 14(2), 45-66.
- 방한승, 최우성, 나상문, 조형규 (2017). 취업
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관광관련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42(2), 69-91.
<https://doi.org/10.32780/ktidoi.2017.42.2.69>
- 배병렬 (2005). LISREL 구조방정식모델. 서울:
도서출판 청람.
- 백선주 (2018). 취업 준비 대학생의 사회비교경
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취업 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백은주, 조규관 (2017).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
연구, 17(17), 449-469.

-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17.449>
 변은경, 안은선 (2019).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유머감각, 인지적 정서조절과 대학생 활적응과의 관련성.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 미디어논문지*, 9(8), 75-84.
- <https://doi.org/10.35873/ajmahs.2019.9.8.008>
 서정희 (2012).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준보, 이정미, 이우호 (2019).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인문사회21*, 10(5), 463-476.
- <https://doi.org/10.22143/HSS21.10.5.33>
 손보영, 윤수란 (2018).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人間理解*, 39(2), 149-166.
- <https://doi.org/10.30593/JHUC.39.2.8>
 송진열 (2017).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12), 335-345.
- <https://doi.org/10.5762/KAIS.2017.18.12.335>
 송현심, 성승현 (2015).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129-157.
- 신성철, 최성열 (2019).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상담심리 교육복지*, 6(3), 59-72.
- <https://doi.org/10.20496/cpew.2019.6.3.59>
 어용숙, 이경리, 최송실 (2011).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및 부모와의 독립이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3(6), 3073-3084.
- 이가영, 최태월, 이용선 (2015).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리뷰*, 6(2), 197-209.
- 이민희 (2019). 대학생의 부모애착관계 및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준 (2016).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적 보호요인의 상호작용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8(1), 1-22.
- <https://doi.org/10.19034/KAYW.2016.18.1.01>
 이상준 (2017).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33(4), 75-95.
- <https://doi.org/10.18859/ssrr.2017.11.33.4.75>
 이상준 (2019).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진로교육연구*, 32(4), 53-69.
- 이순례, 김형수 (2017). 대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1(2), 157-183.
- <https://doi.org/10.33071/ssricb.41.2.201708.157>
 이영자 (1994).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역할.

-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언, 정익중, 장유다, 주영하 (2015). 청소년의 휴대폰 의존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와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3), 1-25.
- 이현주 (2014).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요인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조절효과. *교육문제연구*, 27(4), 1-25.
- 임광명, 박덕병 (2020). 지역대학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 *농촌지도와 개발*, 27(3), 145-158.
- 장현정, 이운정 (2019). 학과만족도와 자아정체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문화기술의 융합*, 5(2), 93-99.
- 전연지 (2018).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공동의존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원희, 조명주, 나현주 (2015). 간호대학생의 분노표현방식,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3), 219-228.
<https://doi.org/10.5392/JKCA.2015.15.03.219>
- 정성희, 박수정, 장현숙 (2016). 저소득층 중학생의 비만도에 따른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차이 분석. *교과교육학연구*, 20(6), 490-499.
<https://doi.org/10.24231/rici.2016.20.6.490>
- 정 용, 구훈정 (2019).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와 스트레스취약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7(1), 141-159.
<https://doi.org/10.35151/kyci.2019.27.1.006>
- 정원철, 김진영 (2015). 장애대학생의 지각된 낙인과 우울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8), 345-355.
<https://doi.org/10.5392/JKCA.2015.15.08.345>
- 정중권 (1999). 청소년 후기의 가정과 학교생활 적응이 개체화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보람, 이정미 (2019). 대학생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회복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7(4), 1-11.
<https://doi.org/10.14400/JDC.2019.17.4.001>
- 조세일보 (2020. 12. 1). 고학력 백수 많은 한국...대졸 실업, OECD 14→28위로 '뚝'.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0/12/20201201411538.html>에서 2021년 5월 22일 인출
- 최예숙 (2013). 3년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 19(3), 423-432.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3.423>
- 최윤하, 최민정 (2018).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영향 요인.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8), 419-432.
<https://doi.org/10.35873/ajmahs.2018.8.8.040>
- 통계청. (2021). Kosis 100대 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B1&path=%252Fvisual%252FnsportalStats%252Fdetail.do에서 2021년 5월 22일 인출

- 하도연, 김선희 (2018).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6(3), 55-66.
- 한국은행. (2021). 한국 경제성장률.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2&acq=%EA%B2%BD%EC%A0%9C%EC%84%B1%EC%9E%A5%EB%A5%A0&qdt=0&ie=utf8&query=%ED%95%9C%EA%B5%AD+%EA%B2%BD%EC%A0%9C%EC%84%B1%EC%9E%A5%EB%A5%A0에서 2021년 5월 22일 인출
- 한동협, 김희순, 장성화 (2018). 대학생의 우울, 특성불안, 사회적 지지, 성인애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3(1), 73-88.
<https://doi.org/10.21097/ksw.2018.02.13.1.73>
- Abu-Rayya, H. M., Abu-Rayya, M. H., White, F. A., & Walker, R. (2018). Comparative associations between achieved bicultural identity, achieved ego identity, and achieved religious identity and adaptation among australian adolescent muslims. *Psychological Reports*, 121(2), 324-343.
<https://doi.org/10.1177/0033294117724448>
- Alimohammadi, M., Samani, L. N., Khanjari, S., & Haghani, H. (2019). The effects of multimedia-based puberty health education on male students' self-esteem in the middle school.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Based Nursing & Midwifery*, 7(2), 109-117.
<https://doi.org/10.30476/IJCBNM.2019.44882>
- Arnout, B. A. (2020). A structural equation model relating unemployment stress, spiritual intelligence, and mental health components: Mediators of coping mechanism. *Journal of Public Affairs*, 20(2), 1-14.
<https://doi.org/10.1002/pa.2025>
- Asakereh, A., & Yousofi, N. (2018). Reflective thinki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f iranian EF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 68-89.
<https://doi.org/10.17583/ijep.2018.2896>
- Aspelmeier, J., Love, M., McGill, L., Elliott, A., & Pierce, T. (2012). Self-esteem, locus of control, college adjustment, and GPA among first- and continuing-generation students: A moderator model of generational statu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53(7), 755-781.
<https://doi.org/10.1007/s11162-011-9252-1>
- Bukhari, S. R., & Ejaz, T. (2020).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distress, coping strategies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among university freshmen. *Pakistan Journal of Medical Research*, 59(2), 66-69.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https://doi.org/10.1097/00006842-197609000-00003>
- Espinoza, G., Gillen-O'Neel, C., Gonzales, N. A., & Fuligni, A. J. (2014). Friend affiliations and school adjustment among mexican-american adolescents: The moderating role of peer and parent suppor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 43(12), 1969-1981.
<https://doi.org/10.1007/s10964-013-0023-5>.
- Finney, S. J., & Distefano, C. (2013). Non-normal and categorical data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G. R. Hancock & R. O. Mueller (Ed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second course* (2nd ed., pp. 439-492).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 Flotskaya, N., Bulanova, S., Ponomareva, M., Flotskiy, N., & Konopleva, T. (2019). Self-identity development among indigenous adolescents from the far north of Russia. *Behavioral Sciences*, 9(10), 106-114.
<https://doi.org/10.3390/bs9100106>
- Haines, M. E., Noris, M. P., & Kashy, D. A. (1996). The effect of depressed mood on academic performance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7(5), 519-526.
- Kim, M. J., Preis, M. W., & Lee, C. K. (2019). The effects of helping, self-expression, and enjoyment on social capital in social media: The moderating effect of avoidance attachment in the tourism context.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38(8), 760-781.
<https://doi.org/10.1080/0144929X.2018.1552718>
- Lidy, K. M., & Kahn, J. H. (2006). Personality as a predictor of first-semester adjustment to college: The mediational ro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9(2), 123-134.
<https://doi.org/10.1002/j.2161-1882.2006.tb00099.x>
- Mackenzie, S. B., & Spreng, R. A. (1992). How does motivation moderate the impact of central and peripheral processing on brand attitudes and intention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8(4), 519-529.
<https://doi.org/10.1086/209278>
- Mæhlisen, M. H., Pasgaard, A. A., Mortensen, R. N., Vardinghus-Nielsen, H., Torp-Pedersen, C., & Bøggild, H. (2018). Perceived stress as a risk factor of unemployment: A register-based cohort study. *BMC Public Health*, 18(1), 728-738.
<https://doi.org/10.1186/s12889-018-5618-z>
- Magnusen, L., & Amundson, M. J. (2003).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 experience. *Nursing and Health Science*, 3(4), 261-267.
<https://doi.org/10.1046/j.1442-2018.2003.00158.x>
- Markowitz, S. F. (2014). *The role of mindfulness and ego identity status in college adjustment for the emerging adult*. Dickinson University.
- Mussen, P. H., Conger, J. J., & Kagan, J. (197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4th ed.). NY: Harper & Row.
- Rahat, E., & Ilhan, T. (2016). Coping styles, social support, relational self-construal, and resilience in predicting students'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Educational Sciences: Theory and Practice*, 16(1), 187-208.
<https://doi.org/10.12738/estp.2016.1.0058>
- Shahidi, N. (2020). The moderating effects of sustainability orientation i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model. *Journal of Enterprising Culture*, 28(1), 59-79.

- <https://doi.org/10.1142/S021849582050003X>
Smith, G. J. (2007, March 23-25). *Parenting effects on self-efficacy and self-esteem in late adolescence and how those factors impact adjustment to college* [Paper presentation]. The 78th Annual Meeting of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Philadelphia.
- Yeh, J. H., Wang, S. W., Hsu, M. K., & Swanson, S. (2018). Key account relationship management: The moderating effects of relationship duration and transaction volume. *Service Industries Journal*, 38(7/8), 379-401.
<https://doi.org/10.1080/02642069.2017.1393524>

1 차원고접수 : 2021. 07. 08.

수정원고접수 : 2021. 11. 14.

최종게재결정 : 2021. 12. 27.

The Effect of Job 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on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The Moderating Effect of Ego Identity,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Lee, Sang-June

School of Welfare Social Services, Kyungi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job seeking, ego identity,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f university students on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and the buffering effect of ego identity,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ver negative influence of job seeking stress on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578 university students in Daegu and Gyeongsan in South Korea, and moderating effect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job seeking stress had a negative influence, and ego identity, self-esteem, parent support, and friend support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Second, ego identity, self-esteem, and parent support had a significant buffering effect and a moderating negative influence on the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of job seeking stress. This suggests that a university should constantly operate programs to improve students' self-identity and self-esteem, and open family-related liberal arts courses in relation to the importance of parental support.

Keywords: job seeking stress,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ego identity, self-esteem, social support